

'협치 드라이브' 나선 김관영 도지사 당선인

민생회복 추진 동력 확보

김관영 전북도지사 당선인(더불어민주당)은 29일 인수위원회 활동 결과로 '민선 8기 도정운영 방향'을 도민들에게 중간보고 하는 등 본격적인 '협치 드라이브'에 나서고 있다.

김 도지사 당선인은 선거운동 과정에서부터 밝힌 협치를 실행에 옮기고 있다. 김 당선인은 무너진 전북경제를 살려내고, 도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민생회복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협치를 강화하고 있다. 이는 "도민 여러분을 부모님처럼 모시고 섬기는 도지사"가 되겠다는 섬김의 리더십에서 비롯된 것으로써 도정의 유연성과 속도감을 높이는데 기여하게 될 것으로 풀이된다.

김 당선인은 29일 협치를 구현하기 위해 '민생 혁신 실행'이라는 도정운영 원칙 아래 함께 혁신, 함께 성공 새로운 전북이라는 새로운 도정의 비전을 내놓았다.

김 당선인은 '여야 협치', '도지사·국회의원 협치', '도지사·시장·군수 협치', '도지사·교육감 협치' 등을 구체화하는 '협치 드라이브'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김 당선인은 전북경제를 살려내는데 여야가 따로 없으며, 국민의힘(도당위원장 정운천 국회의원)과 협치하기로 합의하고 정책협력관(정책보좌관)을 국민의힘 몫으로 추천해주시기를 요청해 전북 정치권에 새바람을 일으키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28일 정책협력관 후보들을 김 당선인에게 추천했고 김 당선인은 절차를 거쳐 여야 협

진단을 공동으로 구성하는 등 도와 교육청의 협치에 합의하기도 했다. 앞서 김 당선인은 도내 국회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도지사와 국회의원들의 만남을 월 2회로 정례화해서 도정 현안을 공유하고 협력관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김 당선인은 29일 인수위원회 중간보고 자리에서 '도지사 관사를 도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고 발표하

국회의원·시장군수·교육감 협치 구체화 국힘 도당으로부터 정책협력관 후보 추천받아

치의 상징인 정책협력관을 임명할 예정이다.

김 당선인은 14개 시·군의 시장·군수들과 협치를 이뤄나가기로 했다. 김 당선인과 시장·군수 당선자들은 과거 도지사와 시장·군수들의 갈등을 적극적으로 풀어나가기로 합의하고, 유기적 협력관계를 이어나가기로 합의한 바 있다.

김 당선인은 지난 28일 서거석 교육감 당선인과 만나서 교육협력추

진단을 공동으로 구성하는 등 도와 교육청의 협치에 합의하기도 했다.

김 당선인은 호남정치에서 유례가 없는 협치 드라이브에 속도를 높이며, 전북 정치의 통합과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이는 김 당선인의 정치철학인 실용주의와 협치를 실행에 옮기는 것으로써 향후 중앙 정치권의 협치 논의에도 신선한 자극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경수기자



“새로운 전북을 위하여” 전북도지사 인수위원회가 29일 전주상공회의소 대강당에서 중간보고회를 열고 김관영 당선인과 은성수 인수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혁신적이고 유능한 지방정부 조성 결의”

민주 지선 당선자 워크숍… 우상호 비대위원장 “구설수 없도록” 김관영 전북지사 당선인 “빠 있는 말씀… 특별히 유능해 노력” 김동연 경가지사 당선인 “많은 분들에게 빛져… 이젠 값이갈 것”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지방선거 당선자들을 향해 “합법합당이 결속하고 결속한 자세로 직원을 잘 이끌어주고 조금의 구설수에도 휘말리지 않도록 자신을 돌아보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우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6·1 지방선거 지치단체장 당선자 워크숍에서 “선거 승리의 뒤끝이기도 하고 새로운 출발의 기쁨도 있겠지만 우리당이 그동안 단체장들이 성추문으로 몰락한 것을 예

땀겨게 뚫은 뒤 “사실 이 자리에 함께 해야 할 수많은 동지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고 토로했다. 이어 “어려운 여건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당선되지 못한 다른 후보들을 생각하면서 여기 있는 분들이 그분들 뒤통수까지 일해 주길 당부한다” 어려운 여건 속에 귀중한 승리를 일궈낸 동지 여러분의 투혼과 열정이 당 새 출발의 든든한 디딤돌이 될 거라 확신한다”고 격려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난맥과 혼선이 상당히 심각해지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지자체가 적극적인 역할에 나서야 한다. 주민들의 민생 고통을 적극적인 자치행정을 통해 덜어내는 데 힘을 모아달라”고 주문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고단한 민생이 가뭄 때 없는 한국에 지방정부가 중심을 잡고 민생을 보듬어야 한다. 생활밀착형 민생정책으로 (정부여당과) 차별화해야 한다”며 “당과 원내지도부가 여러분의 특급 도우미가 돼 공약과 지역 숙원사업을 풀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김관영 전북도지사 당선인은 “우 위원장이 빠있는 말씀을 했다”며 “똥가짐을 잘 해주려고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더 유능하고 민주당의 5명의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들이 성과를 내서 몇명 안 남은 사람들이지만 200~300명 몫을 한다는 얘기를 들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화답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은 “이번 선거를 치르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빛을 졌다. 모든 여러분에게 많은 빛을 졌다. 이제 빛을 값이 나가겠다”며 “경가지사로서 헌신하면서 우선 경기도를 위해, 두번째는 경기도가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뀐다는 마음으로 대한민국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민주당이 추구하는 가치를 도정에서 충실히 실현해 달라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다짐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강기정(광주), 김동연(경기), 김영록(전남), 김관영(전북), 오영환(제주) 등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당선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국민의 삶에서부터 혁신적이고 유능한 지방정부를 만들 것”이라며 “우리는 우리 연의 넓은 과거와 과감히 결별하고, 참정량 공직자로서의 자세를 끝까지 견지하면서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해 끊임없이 혁신한다”는 결의문을 낭독하기도 했다. /뉴시스

장인홍 신임 전북선관위 사무처장 내달 취임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7월 1일자로 장인홍(58) 사무처장(3급, 부이사관)이 취임한다고 밝혔다.

신임 장인홍 사무처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시민교육부장, 연수기획부장,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장 등 주요 요직을 역임한 선거행정 전문가로서 평소 온화하고 소탈한 성격에 합리적인 업무처리로 조직 내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다고



조기권 전주시완산구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밝혔다. 한편, 전북선관위는 2022년 7월 1일자로 5급 이상 전보인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했다.

◇4급 승진 ▲조기권 전주시완산구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4급 전보 ▲이강욱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 총무과장 ▲김병수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장 ▲정덕수 익산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이정호 남원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신성홍 완주군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5급 전보 ▲박종범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지도담당관 ▲안영관 전주시완산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담당관 ▲강선기 장수군선거관리위원회 사무과장 /김경수 기자

민주 “국회의장단부터 뽑을 것”… 단독 원구성 드라이브

“결단의 시간… 국회, 민생 직무유기 안돼”

7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한 더불어민주당은 내달 1일 임시국회가 열리는 대로 국회의장단부터 선출하겠다고 밝혔다.

시급한 민생 현안 대응을 명분 삼아 사실상 단독 원구성을 공식화한 것으로, 여야 원구성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책임을 국민의힘에 돌리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박홍근 원내대표가 필리핀까지 가서 회담할 수도 없고 이제 (국회) 정상화를 위한 결단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며 “국회의장단 선거라도 진행해서 국회 운영의 시작을 열어야 할 때가 온 거 같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 비대위원장은 “민생 문제가 시급한데 국회가 열리지 않아 민생대책을 국회에서 논의하지 않는 건 직무유기”

라며 “민생을 위한 국회 정상화가 시급하다. 여당 지도부의 전향적 결단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선거 승리에 도취돼 민생의 고충에는 하나도 관심 없고, 민생의 분노에 조금도 이렇듯 않는 오만한 그 자체”라며 “한마디로 집권 여당이 최근 보여준 모습은 민생 뺏소”라고 가세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사안을 자신들의 의원총회에서 민정일치 박수로 추진해놓고선 양해나 사과도 없이 일방적으로 파기하지 않았나”라며 “입법부에서조차 점령군처럼 행세하며 원내 1당을 발목 잡기 세력으로 공격하는 데만 재미몰린 게 국민의힘”이라고 따져 물었다.

특히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통령 특사로 필리핀으로 떠난 것을 겨냥해 “국회를 빨리 열어 민생 증진

기라 했다. 이 비상 상황에 웬 생똥맞은 특사 활동인지 도무지 모르겠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원내수석부대표 등에 전권을 위임해서라도 민주당처럼 통 큰 양보안을 바로 제시해 말로만 이 아닌 진짜 협치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혁위) 재구성과 검찰총장·형사소송법 권한쟁의심판 취하를 전제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장직 양보 의사를 밝혔음에도 국민의힘이 이를 거부하자 여권의 원구성 지연 책임을 부각시키는 모습이다.

국회 다수당으로서 검수완박법을 밀어붙인 게 지방선거에 역풍으로 작용하는 등 단독 원구성에 정치적 부담이 따르지만, 최근 고물가·고금리, 교육 등 경제 3중고 문제를 명분으로 삼으면 충분히 해법만 있다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다. /뉴시스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